

박지원 “친노 독점 폐해 막아야” 문재인 “광주의 적자 되고 싶다”

당권후보들 광주·전남합동연설회 난타전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주자들이 18일 ‘덧밭’인 광주·전남에서 호남 당심(黨心) 잡기에 사활을 걸고 정면 충돌했다.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저마다 ‘김대중(DJ) 전 대통령 마케팅’에 열을 올리며 전통적 지지층을 겨냥한 ‘저통 경쟁’을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벌였다.

2·8 전당대회 레이스가 중반에 접어들다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전남의 당심을 잡아야 전대 승부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날 화순 하니움체육관에서 열린 전남 합동연설회에 이어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합동연설회에서도 이른바 ‘빅2’인 문재인·박지원 후보간 신경전은 치열했다.

영남 출신의 문 후보는 박근혜 정부와 각을 세우는 것으로 박 후보의 정면공격을 피해가는 한편 호남의 ‘전략적 선택’을 호소하며 대체론 굳히기에 주력했다.

하지만 박 후보는 ‘호남 홀대론’을 전면으로 내세워 문 후보를 향해 십자포화를 퍼붓는 등 지역주의 정세에 기대어 대체론 허물기를 시도했다.

특히 후보 3인 중 유일한 호남출신인 박지원 후보는 ‘흙 구멍’이라는 점을 감안해 문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껏 높였다.

박 후보는 “저는 지난 대선 때 중앙당 한번 못가고, 전라도로 하방했다”며 “광주 목표에선 92%, 호남에서 90% 표표를 주었지만 문재인은 패배했다. 오늘 우리 호남 분들에게 참으로 죄송하고 잘못됐다. 이 반성을 먼저 올린다”면서 문 후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인영 “세대교체 해야”

2000여명 운집 후보 연회

승부 분수령 호남 당심잡기

그는 이어 “문 후보는 노무현 정권 때는 정권이 부산정권이라 하고, 부산 강연회에 가선 영남대표가 돼야 한다고 한다. 이것이 지역주의”라며 “우리 호남은 표만 주고 참고만 있어야 되느냐”고 걱정을 토론했다.

특히 박 후보는 “급할 때면 호남에 우르르 몰려와 ‘위하는 척’ 해놓고 급한 불이 꺼지면 전국정당 한다며 호남을 버린다”고 예민한 지역주의 감정을 건드리기도 했다.

그는 친노 패권론을 거론하면서 “지난 19대 총선 공천 친노가 하는 등 그동안 당을 독점해온 친노가 이제 당권도 대권도 모두 가져간다고 하는데 이는 욕심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당에서 대권 후보를 생각하는 안철수, 정세균 전 대표, 이외에도 박원순, 김두관, 천정배 등은 모두 새정치외의 자산인데, 문 후보가 당권을 잡는다고 하면 이 대권 후보들이 어땠겠느냐”고 수위를 높였다.

박 후보는 “혼자 다할려고 하면 제2의 정동영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당 대표가 되서 대권후보들에게 모두 공정한 기회를 주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문 후보는 DJ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과거’를 부각하는 박 후보와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18일 화순 하니움체육관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당원과 대의원 등 2000여명이 당 대표 후보들과 최고위원 후보들의 연설회를 경청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문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의 대증경제를 있는 우리 당의 성장전략을 만들겠다”면서 “김 대통령이 독재와 싸웠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주의에 맞섰다면, 저는 ‘소득주도성장’을 무기로 소득불평등과 싸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문 후보는 박 후보를 겨냥, “호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당의 지지를 끌어올리는 데 제가 더 낫지 않겠나”며 “대선 때 얻은 48%의 지지를 바탕으로 내년

총선까지 당의 지지율을 40%까지 끌어올리고 광주의 적자가 되고 싶다”면서 다른 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했다.

그는 현 정부와 맞설 적임자를 자처하며 “우리 당이 호남에서 외면받는 건 호남의 지지에 안주했기 때문으로, 호남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전국에서 이기려는 게 광주 시민의 요구이자 광주정신”이라며 “광주의 적자가 되고 싶다. 광주가 다시 문재인을 선택, 김대중 노무현의 전통을 잇게

해달라”고 구애를 펼쳤다. 이인영 후보는 연설 중 김 전 대통령의 이름을 21번이나 언급하면서 ‘DJ 마케팅’에 열을 올렸다.

이 후보는 “김대중의 시대에는 친노와 비노가 없었고, 영남과 호남이 따로 없었다. 김대중에게는 당권·대권 논쟁도 없었고, 계파패권이나 지역당권이라는 낡은 구호는 더더욱 없었다”며 문·박 후보의 대결구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시 김대중의 길을 가겠다. 김대중의 길과 노무현의 길을 싸움붙이는 어저귀니없는 계파질서, 지역구도를 깨뜨리고 우리 당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새로운 시대로의 진입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세대교체론을 내세운 이 후보는 “1971년 40대 가수론의 김대중으로부터 44년만에 다시 세대교체의 길로 가서 제2, 제3의 김대중이 되겠다”고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지원 바람, 문재인 정체 ‘혼전 양상’

‘양강’ 주승용·전병헌 선두권 굳히기

당 대표 경선 판세

새정치민주연합 2·8 전당대회가 중반전에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각 당권 주자 진영에서는 서로 우세를 주장하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이번 전대가 당일 투·개표를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원 샷’ 경선이라는 점에서 각자 ‘아전인수’적의 주장을 내놓고 있다.

우선 박지원 후보 측에서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 대의원과 권리당원에서 문재인 후보를 넘어서 우세를 점했으며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당심과 민심의 차이는 미미할 것이라며 당초 예상한 ‘5(문재인) : 3(박지원) : 2(이인영)’의 구도는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인영 후보 측에서는 ‘세대교체론’에

대한 당원들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어 전반적인 판세는 세 후보가 팽팽하게 맞선 ‘3 : 3 : 3’의 구도를 보이고 있으며 중반 이후 역전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박지원 후보 바람이 예상보다 강하게 불면서 전체적인 당권 구도가 혼전 양상을 띠고 있다는 관측이다.

박 후보의 ‘당권·대권 분리론’이 당원들을 중심으로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데다 호남을 중심으로 지지 흐름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일반당원과 일반 국민에서 대선 후보를 지냈던 인지도를 바탕으로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대의원과 권리당원에서 예상과는 달리 확인한 우세를 점하지 못해 당혹스러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후보도 예상외로 선전하고 있다는 평가다. 호남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당한 지지세를 걸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빅 2’를 넘어서기에는 아직은 힘에 부치지 않느냐는 평가다.

중반전의 관전 포인트는 박지원 후보의 상승세가 계속 되느냐 여부다. 박 후보의 바람이 계속된다면 당권의 행배는 점지기 힘들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정체 현상을 빚고 있는 지지세의 몰표를 트는 과제를 풀어야 한다. 이인영 후보의 ‘분발’ 여부도 관심사다. 강력한 동력 없는 ‘빅 2’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중반전은 박지원 후보의 창과 문재인 후보의 방패가 격돌하는 국면이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최고위원 경선 판세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화하고 있는 오영식·전병헌·주승용·유승희·문병호·이목희·정청래·박우섭(이상 선수·기호 순) 등 최고위원 후보들의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18일 새정치연합 관계자들에 따르면 초반 판세는 주승용·전병헌 후보가 선두권을 형성한 가운데 나머지 후보들의 추격이 거센 상황이다.

비노(비노무현)그룹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주 후보는 호남 출신의 장점을 내세워 초반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일한 호남 후보로 호남 표심은 물론 수도권 호남 출신 인사들 사이에서도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정세균계’ 후보로 구민중계의 지원과

오영식·정청래·박우섭 선전

지 받고 있는 전 후보도 원내대표 등을 거친 때문에 인지도 면에서 다른 후보들을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후보들에 이어 오영식·정청래·박우섭 후보가 경쟁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486 그룹’과 ‘정세균계’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오 후보는 서울시장 위원장으로 활동한 때문에 수도권의 지지세도 등에 업은 상태다.

인천 남구정장인 박우섭 후보는 일각에서는 기초단체장의 적극적 지원을 받고 있어 선두권을 위협하는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인지도 면에서 유리한 상황인 정청래 후보는 자신을 최전방 공격수에 비유해 당의 무기인 ‘당대표’로 뽑아달라는 구호가 현

장에서 효과를 발휘한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선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들을 이어 유일한 여성 후보인 유승희 후보가 주목받고 있다. ‘1인 2표제’로 진행되는 선거에서 여성 후보에게 한 표를 달라고 호소하는 식의 선거 전략이 현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는 자체 분석이다.

주 후보와 함께 비주류 진영을 대표하고 있는 문병호 후보도 출마 결정이 늦어 세몰이가 좀 뒤처졌지만, 당내 비주류 인사나 법조계 출신 인사들의 집중 지원을 받아 선전이 기대된다. 다소 인지도가 낮다는 것이 약점이지만, 일부에서는 친노진영의 지원이 있다면 충분히 당선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이목희 후보는 노동계 지지기반을 토대로 최고위원 임성을 노리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제50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 대회

2015년 3월 1일(일) 08:30 출발
문의 : <http://mara.kjmedia.co.kr> · 062-220-0541

플코스 8:30, 하프코스 8:35

아시아문화전당 출발!! 상무지구 끝!!
플코스, 하프코스 중심 대회!!

대회개요

- 코스 : 아시아문화전당(구,전남도청) 출발 → 송촌로 반환 → 상무시민공원 끝
- 하프코스 : 아시아문화전당(구,전남도청) 출발 → 서창로 반환 → 상무시민공원 끝

신청 및 접수

- 참가자격 : 신체건강한 모든 사람(제한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 접수마감 : 2015년 2월 5일(목)
- 참가비 : 25,000원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http://mara.kjmedia.co.kr>
나. 신청서 FAX접수 : 062-222-0195
다. 방문접수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 (금남로2가 무등빌딩 16층)

주요운영안내

- 참가자지급품 : 배낭(참가자 기록칩 부착), 완주메달, 기복증(완주자), 간식 및 음료
- 개인대상 : 플·하프 1~45위 까지 시상
- 특별상 : 원임부부상, 포토제닉상, 협동상 50명
- 단체 참가 특전 : 단체상 1~15위 시상(상세사항 홈페이지 참조)
- 원거리 참가자 버스운행 (상세사항 홈페이지 참조)

주최 : 광주일보 · (사)아시아문화

주관 : 광주광역시육상경기연맹 · 전라남도육상경기연맹

후원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광주지방보훈청